

■ 2차추진단·광주교대·광주MBC 공개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 “아름다운 자연·전통 경쟁력 충분 한국적 디자인 세계에서 통할 것”

디자이너 은병수 '전통과 자연이 숨 쉬는 아시아'

“아시아의 디자인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전통적인 기법으로 현대적 발상을 가미해 작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26일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를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시민들은 디자이너 은병수(52·EUN-council '비움' 대표)씨가 보여주는 동남아시아 일대의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에 감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교육대와 광주MBC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이해 여섯 번째 공개강좌에서 은씨는 '전통과 자연이 숨 쉬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현대화한 동남아시아의 디자인 상품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시아적인 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벗어나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한 은씨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성공한 디자인을 보면 하나같이 자연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 것이고 전

통적 기법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관광 상품 하나에도 고유한 전통을 담았고 호텔 인테리어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변용해 디자인하고 있죠.”

최근 아시아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아졌고, 아시아적인 아이콘이 새로운 문화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어디서든 느낄 수 있다는 은씨는 “우리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아시아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개발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씨는 한국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한국의 인사동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관광상품이 열쇠고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호텔도 이름만 우리 것이지 한국적인 것이라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씨는 우리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씨는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볼 때 그

릇과 가구, 조명·섬유 등 생활용품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모티브가 있고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 문화는 경쟁력이 충분히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씨는 이를 위해선 현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관광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기법을 활용해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씨는 “한국적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젊은 세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한국문화의 전통을 인식시키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은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공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산업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산업디자인전문화협회 초대회장, 대한민국의 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및 집행위원, 20세기세계디자인전 총괄디렉터, 아시아디자인상(홍콩)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문화 이해 강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손에 닿을듯 유럽이 느껴지네

서선영 27~30일 프랑스서 개인전

서양화가 서선영씨가 오는 27~30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국제아트살롱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서씨는 과감한 생략과 대범한 터치, 풍성한 여백으로 유럽 각지의 풍광을 담은 신작을 선보인다. 또 풍경화와 정물 등을 오브제로 한 유화 연작도 함께 전시한다.

어촌이나 시골 마을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과 원근법으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1986년 신미술대전 입상, 1996년 한국예술대전 종합대상, 2002년 전남도 미술대전 특선, 중국 심양국제전 대상, 미국 뉴욕 올드아트페스티벌 국제전 금상을 수상했다. 국내 4차례, 뉴욕과 파리 해외 전시 5차례를 열었고 현재 광주미술협회, 광주사생회, 광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

주기독미술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현대인들은 ‘무표정 꼭두각시’

전현숙 개인전 내달 4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그녀의 작품 속 여백은 겹겹이다. 겹겹은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가는 산조열매처럼 까만 현대인의 눈동자와 잘 어울린다.

서양화가 전현숙씨가 26~6월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꽃들이 춤을 추어라”를 주제로 풍만한 삶을 강조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담은 신작을 선보인다.

화려한 색의 대비와 함께 양반과 각시탈을 쓴 춤꾼, 무표정한 인물을 강조해 그려 넣었다.

이들 인물은 모두 꼭두각시 줄을 매달고 있다. 자발적인 춤사위가 아닌, 타의에 의해 춤을 추는 이들의 표정에서는 운명적인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전남대 예술대 출신으로 6회의 개인전과 60여건의 단체전, 현대미술제안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중국 북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신세계미술제에서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꽃들이 춤을 추어라

## 한지에 담긴 민족의 숨결

박월선 창작동화 ‘다나무 숲의 비밀’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 박월선(43)씨의 창작동화 ‘다나무 숲의 비밀’이 나왔다.

책은 아빠의 은행빚 때문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한지마을로 오게 된 ‘지우’가 한지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겪는 신기한 모험을 소재로 했다.

지우는 한지 소녀를 따라 다나무숲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지를 지켜온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길담이 삼촌을 만나 한지의 전통을 알아간다.

박씨는 “완주 대송마을 등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곳을 찾아다니며 상상 속의 인물인 한지 만드는 할아버지와 한지 소녀를 통해 속의 그렸다”며 “한지에 담긴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록으로 ‘맹기소녀와 함께 떠나는 한지체험여행’을 실어 전통 한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박씨는 완도 출생으로 광주대 대학원에서 동화를 공부했으며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 전북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 현재 전북 완주에 살며 독서 논술을 지도하고 있다.



다나무 숲의 비밀

〈창게구리·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플루트로 듣는 ‘넬라판타지아’

‘음빛선율’ 오늘 일곡도서관서 창단연주회

광주 북구일곡도서관 플루트반 동아리에서 태동한 플루트 앙상블 ‘음빛선율’(리더 김미강·사진)이 27일 오후 7시 30분 도서관 공연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다.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지역민 30여명으로 구성된 팀은 2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주실력을 연마했으며 꾸준히 음악봉사활동을 해왔다.

‘플랫(b)에서 샷(#)까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지 K.525’, 쇼팽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사랑은’, ‘마법의 성’ 등 클래식에서부터 가곡, 대중가요까지 편안하고 아늑한 연주를 선보인다. 특히 영화 ‘미션’의 삽입곡이자 방송 프로그램 합창단이 불러 인기를 끈 ‘Gabriel’s Oboe’(넬라판타지아) 등 귀에 익은 음악들로 5월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문의 062-575-34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moviehelic

상무점

|     |                     |
|-----|---------------------|
| 1관  | 씨니 (15세)            |
| 2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3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4관  | 쿵푸팬더2 (전제)          |
| 5관  | 씨니 (15세)            |
| 6관  | 내부 수리중              |
| 7관  | 내부 수리중              |
| 8관  | 내부 수리중              |
| 9관  | 내부 수리중              |
| 10관 | 내부 수리중              |

하남점

|     |                             |
|-----|-----------------------------|
| 1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2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3관  | 씨니 (15세)                    |
| 4관  | 쿵푸팬더2 (전제)                  |
| 5관  | 씨니 (15세)                    |
| 6관  |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            |
| 7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8관  |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 / 헤드 (18세) |
| 9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10관 | 쿵푸팬더2 (전제)                  |
| 11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 MEGABOX

|    |                            |      |
|----|----------------------------|------|
| M관 | 쿵푸팬더2 (전제)                 | 최고급관 |
| 2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 3관 | 씨니 (15세)                   |      |
| 4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 5관 | 쿵푸팬더2 (전제)                 |      |
| 6관 | 헤드 (18세)                   |      |
| 7관 | 소스코드 (12세) / 캐리비안의해적 (12세) |      |
| 8관 | 씨니 (15세)                   |      |
| 9관 | 쿵푸팬더2 (전제)                 |      |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황금주자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cinus

|    |                     |
|----|---------------------|
| 1관 | 쿵푸팬더2 (전제)          |
| 2관 | 쿵푸팬더2 (전제)          |
| 3관 | 씨니 (15세) / 헤드 (18세) |
| 4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5관 | 씨니 (15세)            |
| 6관 | 삼국지 (15세)           |
| 7관 | 회초리 (12세)           |
| 8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 9관 |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